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자상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대한소아과학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55-3
서초월드오피스텔 1606호
전화: (02)3473-7305~6
팩스: (02)3473-7307
Homepage: www.pediatrics.or.kr
E-mail: pediatrics@pediatrics.or.kr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1606, Seocho World Officetel
1355-3, Seocho-2Dong, Seocho-Ku Seoul,
137-862, Korea
TEL : 82-2-3473-7305~6
FAX : 82-2-3473-7307
Homepage: www.pediatrics.or.kr
E-mail: pediatrics@pediatrics.or.kr

대소학: 제 486 호

2011. 8. 11.

수 신: 각 대학병원 교수님

제 목: Korean Journal of Pediatrics(KJP) 게재원고 SCI(E) 투고논문에 인용 부탁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하심을 빕니다.

Korean Journal of Pediatrics(KJP)는 2010년 5월호부터 영문 잡지로 개편 한 이후에 PubMed, Scopus 등의 유명한 DB에 등재되어 현재 문헌검색 사이트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표인 SCI(E) 등재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KJP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소아과학 연구의 중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SCI(E)에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KJP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과학을 대표하는 대한소아과학회 공식학술지로서 SCI(E) 등재 기준에 부합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SCI(E)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SCI(E)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에 KJP 게재 논문이 인용되는 것입니다. 국내 학술지 중 SCI(E)에 등재된 학술지의 Impact Factor(IF)는 JKMS가 0.84, YMJ가 0.77정도 입니다. 현재 KJP의 비공식 IF는 0.1정도 입니다.

KJP의 IF가 최소 0.3정도 되면 SCI(E)에 등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KJP가 0.3정도의 IF를 얻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KJP에 게재된 논문이 총 30번 정도 SCI(E) 논문에 인용**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1년 KJP의 IF 계산 방법

A: 2009, 2010년에 발행된 JKP의 논문 수 합 (원저+종설 수입, 증례는 제외)이 2011년에 발행된 SCI 및 SCIE 잡지의 참고문헌에 인용된 횟수

B: 2009, 2010년에 발행된 JKP의 논문 수 합 (원저+종설 수입, 증례는 제외)

IF= A/B

따라서 2011년에 발행하는 SCI 및 SCIE 잡지의 참고문헌에 2009, 2010년에 발행된 JKP의 논문이 참고문헌으로 많이 인용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일본 소아청소년학회지인 International Pediatrics 지의 IF는 0.7 입니다. 홍콩 소아과학회지인 Hong Kong J Paediatr IF는 0.2, 터키 소아과학회지인 Trukish J Pediatr 0.3, 인도 소아과학회지인 Indian J Pediatr 0.5, 스페인 소아과학회지인 An Pediatr IF는 0.6 입니다.

KJP 에게 앞으로 1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KJP의 SCI(E)등재가 지연된다면 국내 소아과 연구자들은 승진과 연구비 지원 등을 위하여 계속 외국 잡지에 투고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선생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SCI(E)에 투고를 목적으로 작성중인 논문이나 채택된 논문이 있으시면 지난 2년간 KJP에 게재된 관련 논문을 1-2개 이상의 인용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SCI(E) 투고 논문에 많이 인용될 수 있는 좋은 논문의 KJP에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학회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KJP 논문을 인용 하신 후 학회사무국 E-mail (pediatrics@pediatircs.or.kr)에 알려주시면 약소하나마 인용 편수에 따른 감사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KJP의 SCI(E) 등재를 위하여 여러 선생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앙망합니다.

대한소아과학회

간행이사 나영호
이사장 이준성
회장 황태주

